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와의 관계: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하 대 근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생

이 수 진[†]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에서는 병적 도박행동에 이르게 되는 도박의 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도박 위험 성격으로 충동성과, 위험 성격을 통제할 수 있는 변인으로 고통감내력을 고려하였으며, 도박 심각도에 미치는 다차원적 충동성의 효과와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 정서경험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코올 등 물질을 사용하고,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회피하기 위해 관계 및 SNS 중독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를 견뎌낼 수 있는 고통감내력과 관련하여 연구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상도에 위치한 도박 전문 상담기관에 방문하는 도박대상자 165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차원적 충동성 질문지, 도박심각도 질문지, 고통감내력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고통감내력은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고통감내력은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즉, 다차원적 충동성은 도박 심각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고통감내력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와의 경로에서 다차원적 충동성의 직접효과 및 고통감내력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다차원적 충동성, 도박 심각도, 고통감내력, 매개효과

* 본 연구는 교신저자의 지도로 완성된 제 1저자의 석사 졸업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수진 /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 (48434) 부산 남구 수영로 309 /

Tel: 051-663-4328 / E-mail: leesooj@ks.ac.kr

 Copyright ©2023,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심각한 중독 문제들이 현대 사회에 직면해 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행동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물질과 즐거움이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점하고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와 코로나 19에 의한 우울 등 정서적인 측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개인의 욕구들이 중독 문제 중 도박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APA, 2013).

Devereux(1979)는 도박을 불확실한 결과를 수반하는 사건에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내거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Slade와 McConville(2003)는 도박에 대하여 우연이나 기술이 관여되는 게임과 사건의 결과에 금전을 거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16)에서는 도박을 ‘다른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이나 활동에 금전이나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거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인 인구 중 약 220만 명이 도박중독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6a). 이와 같은 합법 및 불법 사행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최근 집중 조명 받고 있는 사회문제가 바로 도박중독(gambling addiction)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국내 성인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5.3%로 프랑스 1.3%(2011년), 영국 2.5%(2011년), 호주 2.3%(2013년), 캐나다 1.8%(2014년)인 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 이영선 등(2018)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을 통해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주식투자와 가상화폐 투자의 중독 위험성 또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강준혁, 맹성준, 2018)에 따르면, 주식투자의 경험도 도박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 중독포럼(2020)에서 코로

나 확산으로 인해 재택 근무가 진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져 대중적으로 확장되어져 주 1회 이상 도박을 하는 사람 중 도박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후, 헬프라인의 이용자 수가 16%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도박은 감소하였으나, 불법 온라인 도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보영, 2020). 그로 인한 도박중독은 청소년기에 이어 성인기까지 이어지고, 심리 사회적 적응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일생에 걸쳐 반복적인 부적응적 도박행동을 보이고 개인에게 고통을 초래하기도 한다(신현주, 김주찬, 2017).

도박에 중독되면 죄의식과 불면증, 정신적인 무기력함, 우울증, 분노감,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릴 수 있으며(김영호, 2011), 경제문제의 악화로 인해 빈곤화 및 가족과의 갈등 심화로 부부싸움, 별거, 이혼, 가정파탄 등으로 자녀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양수, 홍정아, 2015). 또한, 도박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즐기거나 중지시키려고 할 때 안전부절못하거나 과민해지며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중요한 대인관계, 교육적, 직업적 기회를 잃거나 위협에 빠뜨린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도박중독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도박장애에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경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성격적 요인 및 정서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강지영, 2019;

McCown & Chanmerlain, 2000). 이러한 변인 중 성격 특성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양한 반응 양상을 나타내어 질병의 발생과 경과, 예후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어져 알코올 의존이나 물질사용 장애 등 각종 중독 현상을 성격적 특징과 관련하여 접근하였다(이주영, 2010). 현재까지 연구되어진 성격 이론들에서는 인간의 태도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 개인의 성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며, 성격 이론적 입장에서 보면 부적응적인 행동은 성격결함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고 병적도박자는 도박에 취약한 성격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격 특성 중에서 충동성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며, 병적도박을 지속시키고 심화시키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주원, 2010; Zuckerman, 1989).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처벌에 둔감하기 때문에 위험이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여 현재 상황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주변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Zuckerman, 1989). 신영철(2001)은 병적도박자 집단이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충동적인 면이 있다고 보았으며, Blaszczynski와 Nower(2002)는 문제성 도박의 핵심 특징 중 하나로 충동성을 이야기하였다.

Jessor et al.(1994)는 중독이라는 문제행동을 Jessor의 문제행동이론(problem behavior theory)에서 언급한 다양한 위험 요인 및 보호 요인들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위험 요인으로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모델링, 문제행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접근성, 문제행동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의 취약성, 다른 문제행동의 경험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행동인 도박문제는 충동성이 높을수록 도박의 치료가 어렵고, 문제도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를 기반으로 충동성을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김민경, 2006; 서명교, 2020). 보호 요인은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긍정적, 적응적 행동을 위한 모델을 제공한다.

위험요인인 충동성은 예전에 기능적, 역기능적과 같은 단일 차원의 관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학자들의 불일치로 인해 혼란스럽게 있던 충동성 개념들을 성격적 관점에서 통합 정리하고자 시도하여 Whiteside와 Lynam(2001)의 연구에서 성격을 강조한 다차원적 충동성 모델(UPPS-P: urgency, premeditation, perseverance, sensation seeking, positive urgency)을 제안하고 Cyders et al.(2007)의 연구에서 개발하였다. 첫째,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부정 긴급성은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한다. 둘째, 강렬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긍정 긴급성은 음주, 위험한 성행동, 약물 사용과 도박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숙고하는 경향성의 부족으로 정의되는 계획성 부족은 정신병질, 도박문제, 반사회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넷째, 지루하고 어려운 과제에 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을 나타내는 지속성 부족은 ADHD의 부주의형이나 학업 불성실과 관련이 있다. 다섯 번째, 흥분되는 활동을 즐기고 추구하는 경향성이며 위험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정의되는 감각추구는 문제행동의 심각성 수준보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빈도와 연관이 있다. MacLaren et al.(2011)는 메타연구를 통하여 긴급성과 계획성 부족 요인이 도박 심각도를 증가시키지만, 지속성 부족과 감각추구 요인은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있으나, 임선영(2014)은 다차원적 충동성 5요인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계획성 부족, 긍정 긴급성, 부정 긴급성, 지속성 부족이 도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차원적 충동성은 도박관련 문제에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일관적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 UPPS-P 충동성 요인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Jessor의 문제행동이론(problem behavior theory)에서 볼 때, 보호 요인은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긍정적, 적응적 행동을 위한 모델을 제공한다. 고통감내력은 부정적인 정서를 견뎌내어 극복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호요인으로 볼 수 있다. 고통감내력(DT: distress tolerance)이란 정서적, 신체적 고통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가까이 경험하고 견뎌낼 수 있는 개인의 역량으로 정의한다. 부정적 정서와 함께 신체적 불편감과 같은 혐오스러운 상태를 견뎌낼 수 있는 인지적 능력 및 스트레스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내적 심리상태를 극복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것이다(Brown et al., 2005; Simons & Gaher, 2005). 고통을 참는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고, 각 개인의 생활에서 발생한 고통을 수용하지 못할 때 정서적 고통이 악화될 수 있는데, 중독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면서도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고통감내력이 높을 경우 중독과 관련 있는 부적 정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에 중요한 보호요인이 된다.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은 3가지 이론적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Clen et al.(2011)의 인지적 평가 모델이다. 인지적 평가 모델은 전통적인 인지 이론의 틀을 기반으로 하여, 부정 정서 경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며, 그 결과 부정 정서를 경험하려는 동기가 저하된다고 보았다(서장원, 권석만, 2015). 둘째, Gratz와 Tull(2011)이 주장한 자기조절 자원(self-regulatory resource) 모델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조절 자원의 정도에 따라서 정서적 고통을 견디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통을 견디는 과정이 개인이 지닌 자원을 소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셋째, Trafton과 Gifford(2011)는 고통감내력에 대한 행동주의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때 강조한 것은 개인의 고통을 줄이는 반응선택의 기회 즉, ‘부적 강화 기회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고통감내력은 다양한 심리장애 및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서장원, 권석만, 2015). Richards et al.(2011)의 연구에서 고통감내력은 물질사용장애의 발현 및 유지, 재발, 치료경과에 모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핵심기제는 부적강화이다. 또한, Vujanovic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불안장애의 주된 정서는 불안고통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고통감내력은 고통의 유형보다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담고 있는 부정적 정동의 강도와 각성 수준이 주된 개념인 것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고통을 구성하는 요소가 불안일 경우 유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 섭식장애는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여 고통감내력과 부적관계를 맺고 있고

(Corstorphine et al., 2007), 경계선 성격장애를 지니고 있으면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아졌으며 (Linehan, 1993), Daughters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고통감내력의 수준이 낮다고 한다. 이에 더해, 자해 및 자살행동에서 자해는 정서적 고통을 줄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 자해가 있는 경우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다(Anestis & Joiner, 2012). 이와 같이, 물질사용장애 치료과정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치료 장면을 이탈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었다(Daughters et al., 2005). 이러한 차이를 포착하는 핵심적인 개념을 고통감내력으로 보았다.

고통감내력은 3가지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조절 요인은 부정적인 정서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며, 둘째, 감내력 및 몰두 요인은 고통을 견디기 어려우며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며 고통스러운 감정에 주의가 함몰되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평가요인은 고통에 대한 수용이 부족하며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도박과 고통감내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지만, 도박 중독과 같은 유형에 속해 있는 관계중독에서 고통감내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중독이란 지나치게 타인에게 몰두하고 자신 스스로 잘 돌보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관계에 집착하는 ‘관계’ 자체에 중독된 것을 의미하며 부적응적인 회피적 대처 전략에 해당한다(정은정, 2017). 한편, McHugh et al.(2011)는 부정적인 정서를 견디는 고통감내력이 부족할수록 두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회피하기 위해 중독적인 성향을 더 많이 보인

다고 하였다. 부정적 정서와 관계중독 사이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이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수민, 2016; 배진영, 2019; 이미영, 2019). 도박행동 또한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에 대체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고통감내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통감내력과 다차원적 충동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각 척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사개념들을 사용하였는데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에서는 정서조절, 인내력, 자기통제력, 개방성 및 외향성 개념을 사용하였고, 고통감내력에서는 정서조절곤란과 끈기를 사용하였다. 유사개념인 정서조절 곤란이 Gratz와 Roemer(2004)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나오게 되는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여 개인이 바라는 목표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과 융통성 있게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정서 조절의 곤란과 정적 상관의 관련이 있고(윤정민, 심은정, 2019), 지속성 부족은 모호한 상황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하여 버티지 못한다는 유사한 정의를 지니는 인내력 부족과 부적 상관을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안계훈, 김은정, 2017). Simons et al.(2018)의 연구에서 계획성 부족은 Barratt 충동성 척도에서 비계획성 충동성과 유사하여 자기통제력이 약할 경우 정서적인 면에서 참을성이 부족하여 여러 행동으로 회피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불충분한 자기통제력은 고통감내력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 이에 더해, Chowdhury et al.(2018)는 감각추구는 Big 5 이론에서 개방성과 외향성과 관련이 있어 낮은 수준의 외향성과 개방성은 낮은 수준의 고통감내력과 관련이 있다.

Bradley(2003)은 다양한 심리장애와 문제행동이 고통감내력과 관련이 있는 이유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부적응적인 통제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견디지 못하고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도나 노력들이 다양한 심리장애를 형성하게 되며(Bradley, 2003),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심리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서장원, 권석만, 2015).

정리하면, 다차원적 충동성 뿐만 아니라, 부정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인 고통감내력도 도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라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박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차원적 충동성이 도박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통감내력이 어떤 매개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단일화 충동성이 아닌 Cyder et al.(2007)이 정의한 다차원적 충동성을 이용하여 도박 심각도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더하여, 부정적 정서경험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코올 등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고(Buckner et al., 2007; Dennhardt & Murphy, 2011; Gorka et al., 2012), 부정적인 정서를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하기 위해 관계에 중독이 된다고 하며(McHugh et al., 2011; Schaeffer, 2010), SNS 중독 또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면서 부정적 사고나 감정을 경감시켜주기에, Trafton과 Gifford(2011)가 정의한 부정정서를 견뎌낼 수 있는 고통감내력과 관련하여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 간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고통감내력이 다차원적 충

동성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윤리적 연구 시행을 위해 2021년 3월 24일 경성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으며 10대부터 50대까지 부산시와 대구시 소재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민간전문 상담기관에 도박 문제로 내방한 내담자 중 165명이 응답하였으며, 참가자는 모두 남자였다.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부산시와 대구시 소재의 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각 센터를 이용하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비확률표집 및 편의 표집으로 담당 상담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며 설명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직접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Negative Urgency, Positive Urgency, Premeditation, Perseverance, Sensation seeking: UPPS-P)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Negative Urgency, Positive Urgency, Premeditation, Perseverance, Sensation seeking; UPPS-P)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Whiteside와 Lynam(2001)이 개발하고

Cyder et al.(2007)이 개정한 것이다. UPPS-P 척도는 부정 긴급성과 긍정 긴급성, 지속성 부족, 계획성 부족, 그리고 감각추구의 5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총 59문항의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선영과 이영호(2016)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서 1점은 ‘매우 동의한다’, 2점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 3점은 ‘동의하지 않는다’, 4점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인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선영과 이영호(2016)의 타당화 연구에서 UPPS-P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고, 부정 긴급성 .85, 긍정 긴급성 .92, 지속성 부족 .78, 계획성 부족 .81, 감각추구 .84로 비교적 양호한 내적 일치도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UPPS-P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며,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부정 긴급성 .89, 긍정 긴급성 .93, 계획성 부족 .85, 지속성 부족 .85, 감각추구 .81이다.

고통감내력 척도(Distress Tolerance Scale; DTS)

부정 정서에 대한 감내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imons와 Gaher(2005)가 개발한 15문항의 고통감내력 척도(Distress Tolerance Scale; DTS)를, 박성아(2010)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DTS 척도는 조절, 감내력 및 몰두, 평가의 3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 총 15문항의 도구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때때로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거의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5점

에서 75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고통에 대한 감내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성아(2010)의 연구에서 조절, 감내력과 몰두와 평가의 세 요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아(2010)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며 하위 요인인 조절은 .71, 감내력과 몰두는 .90, 평가는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고통감내력의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조절 .78, 감내력 및 몰두 .86, 평가 .80이다.

한국판 캐나다 문제도박 척도(Korean version of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K-CPGI)

개인이 겪고 있는 도박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Ferris와 Wynne(2001)가 개발한 캐나다 문제도박 척도(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CPGI)를 김아영 등(2011)이 변안한 한국판 캐나다 문제도박 척도(Korean version of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K-CPGI)를 사용하였다. 지난 1년간 도박 관련 문제를 경험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 ‘전혀 아니다’, 1점 ‘약간 아니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범위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9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토대로 0점은 ‘비문제성 도박자’, 1~2점은 ‘저위험 도박자’, 3~7점은 ‘중위험 도박자’, 8점 이상이면 ‘문제성 도박자’에 해당한다. 통계자료 수집 시에 ‘중위험 도박자’와 ‘문제성 도박자’를 도박 유병률에 포함시킨다. 김아영 등(201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이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 단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5.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가진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등을 알기 위해 SPSS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값을 산출하고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 총동성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분석절차와 Preacher et al.(200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Bootstrapping 방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5,000번 추출하여 분석하도록 설정하였고 95% 신뢰구간(Confidential interval)을 적용하였다.

결 과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참가자의 연령분포는 18세부터 58세로, 평균 연령은 32.65($SD = 8.43$)였으며, 학력은 중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165)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	165	100	
	10대(10~19)	10	6.1	
	20대(20~29)	51	30.9	
	연령대	30대(30~39)	69	41.8
		40대(40~49)	29	17.6
		50대(50~59)	6	3.6
		중졸	4	2.4
	고졸	6	3.6	
고졸퇴	2	1.2		
고졸	70	42.4		
학력	대졸	9	5.5	
	대학중퇴	3	1.8	
	전문대졸	9	5.5	
	대졸	59	35.8	
	석사	3	1.8	

졸부터 석사까지 분포되어졌다. 다차원적 총동성의 점수는 141.64($SD = 23.68$), 고통감내력의 점수는 47.70($SD = 10.46$), 도박 심각도의 점수는 20.01($SD = 4.86$)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총동성, 고통감내력, 도박 심각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2에 제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5.0을 활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고, 표 3에 제시하였다.

다차원적 총동성은 고통감내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 = -.53, p < .001$),

도박심각도($r = .33,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첫째, 다차원적 충동성의 하위 척도인 부정 긴급성은 고통감내력($r = -.55, p < .001$)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정 긴급성과 고통감내력의 하위 척도를 살펴보면 조절($r = -.41, p <$

표 2. 주요 변인별 상관분석 결과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89***	1									
3	.91***	.85***	1								
4	.67***	.51***	.47***	1							
5	.62***	.47***	.41***	.67***	1						
6	.50***	.31***	.41***	.00	-.06	1					
7	-.53***	-.55***	-.53***	-.28***	-.26**	-.26**	1				
8	-.39***	-.41***	-.41***	-.16*	-.10	-.24**	.74***	1			
9	-.46***	-.48***	-.46***	-.21***	-.18*	-.27***	.87***	.48***	1		
10	-.49***	-.50***	-.47***	-.30***	-.33***	-.17*	.92***	.56***	.69***	1	
11	.33***	.33***	.30***	.17*	.13	.23**	-.36***	-.20*	-.35***	-.35***	1

주. 1. 다차원적 충동성 2. 부정 긴급성 3. 긍정 긴급성 4. 계획성 부족 5. 지속성 부족
6. 감각추구 7. 고통감내력 8. 조절 9. 감내력 및 몰두 10. 평가 11. 도박 심각도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하위차원	M(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다차원적 충동성	141.64(23.68)	83	195	-.05	-.52
부정 긴급성	30.92(6.79)	17	47	-.08	-.63
긍정 긴급성	34.13(8.65)	14	55	.07	-.36
계획성 부족	24.50(5.18)	12	40	-.02	.01
지속성 부족	22.03(4.93)	11	35	.16	-.12
감각추구	30.05(6.43)	14	46	.06	-.15
고통감내력	47.70(10.46)	22	71	-.13	-.54
조절	9.40(2.79)	3	15	.09	-.61
감내력 및 몰두	15.80(4.34)	5	25	-.13	-.37
평가	22.50(5.04)	9	34	-.27	-.18
도박심각도	20.01(4.86)	2	27	-.64	.17

.001), 감내력/몰두($r = -.48, p < .001$), 평가($r = -.50, p < .001$)으로 모두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도박 심각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33, p < .001$)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 긴급성의 경우 고통감내력($r = -.53, p < .001$)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들인 조절($r = -.41, p < .001$), 감내력/몰두($r = -.46, p < .001$), 평가($r = -.47, p < .001$)와도 모두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도박 심각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30, p < .001$)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차원적 충동성의 계획성 부족은 고통감내력($r = -.28, p < .001$)간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고통감내력의 하위 요인인 조절($r = -.16, p < .05$), 감내력/몰두($r = -.21, p < .01$), 평가($r = -.30, p < .001$)와 모두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도박 심각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17, p < .05$)으로 나타났다. 넷째, 하위 척도인 지속성 부족에서 고통감내력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감각추구 요인은 고통감내력($r = -.26, p < .01$)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고통감내력의 하위 요인인 조절($r = -.24, p < .01$), 감내력/몰두($r = -.27, p <$

.001), 평가($r = -.17, p < .05$)와는 모두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도박 심각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23, p < .01$)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와와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다차원적 충동성이 도박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다차원적 충동성은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고통감내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 다차원적 충동성이 종속변수인 도박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고통감내력이 도박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의 $\beta = .33$ 이 3단계에서 $\beta = .19$ 로 감소하여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표 4.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와와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매개모형 검증	B	se	β	t	R ²	F
다차원적 충동성 → 고통감내력	-.24	.03	-.53	-8.04***	.28	64.59***
다차원적 충동성 → 도박 심각도	.07	.02	.33	4.41***	.11	19.41***
다차원적 충동성 → 도박 심각도	.04	.02	.19	2.17*	.16	15.06***
고통감내력 → 도박 심각도	-.12	.04	-.27	-3.11**		

Bootstrapping(5,000)	Effect	SE	95% CI	
			Low	High
	.029	.010	.010	.05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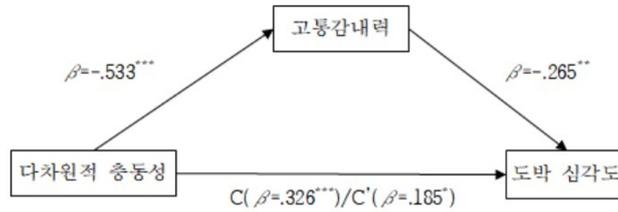


그림 1. 다차원적 충동성, 고통감내력, 도박 심각도의 매개모형 결과

통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고, 분석 결과 매개효과 계수는 .03이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reacher & Hayes, 2004). 이는 도박 심각도에 대한 다차원적 충동성의 직접효과와 다차원적 충동성이 고통감내력을 거쳐 도박 심각도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적 충동성의 하위 요인별 매개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하위요인들이 고통감내력과 도박심각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지니고 있다. 부정 긴급성은 부분매개효과, 긍정 긴급성,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 감각추구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표는 다차원적 충동성, 도박 심각도, 고통감내력의 관계를 알아보고, 특히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다차원적 충동성 하위 요인이 도박 심각도에 미치는 고통감내력 하위 요인별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해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차원적 충동성은 도박 심각도와 정적 상관을 유의미하게 나타내어 가설 1을 지지하였다. 하위 요인별 도박 심각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속성 부족을 제외한 부정 긴급성과 긍정 긴급성, 감각추구, 계획성 부족은 도박 심각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성 부족이 도박 심각도에 유의한 결과가 없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신민철, 2017)와 도박 심각도가 아닌 도박빈도에 대한 예측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연구(Fischer & Smith, 2008), 그리고 MacLaren et al.(2011)의 메타연구 결과에서 지속성 부족 하위 요인이 도박 심각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둘째,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이 매개효과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충동성의 하위 요인이 도박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통감내력의 하위 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중, 도박 심각도에 대한 고통감내력의 조절 요인에서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감내력이 도박 심각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은 확실하나, 조절요인의 저하가 도박에 빠지도록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김교현(2006)은 도박에 의한 피해

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고 반복되어도 자기조절력을 갖춘다면 심각한 도박문제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기조절이 높은 사람일수록 중독 수준이 낮고, 자기조절이 낮은 사람일수록 중독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우형진, 2007; 한유진, 최나야, 2009). 이로 인해, 각 요인별 간접효과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차원적 충동성의 하위 요인인 부정 긴급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고통감내력의 조절 하위 요인을 제외한 감내력 및 몰두 하위 요인, 평가 하위 요인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어려움을 느끼기에 도박에 빠질 확률이 높아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고통감내력이 낮을 경우 조절요인이 정서 조절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높이고(Linehan, 1993), 부정 긴급성이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관련 있다는(d'Acremont & Van der Linden, 2007)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위요인인 긍정 긴급성은 고통감내력의 조절 하위 요인을 제외한 감내력 및 몰두 하위 요인, 평가 하위 요인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긍정 정서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도박에 빠질 확률이 높은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긍정 정서가 증진되면 정서 조절 곤란 수준이 낮아져 자기조절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의철, 박영신, 2006; 이서정, 현명호, 2008; 조용래, 2007)와 부합한다.

또한, 계획성 부족 요인은 고통감내력의 조절 하위 요인, 감내력 및 몰두 하위 요인, 평가 하위 요인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숙고하는 경향이 부족하여 회피성을 가진 문제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사람들은 예상되는 사건의 결과로 인해 느끼게 되는 힘든 정서나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부족할수록 도박 심각도를 높게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고통감내력이 낮은 사람이 음주 문제, 물질중독과 같은 다양한 중독 문제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김가희, 2019; Daughters et al., 2005; Gorka et al., 2012), 도박빈도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며(Fischer & Smith, 2008; Whiteside et al., 2005), 계획성 부족과 동일하게 행동 전 결과를 숙고하는 경향성의 부족이 도박 심각도에 유의한 결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신민철, 2017)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차원적 충동성의 하위 요인인 지속성 부족을 살펴보면, 고통감내력의 조절 하위 요인을 제외한 감내력 및 몰두 하위 요인, 평가 하위 요인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정서에서도 견디는 능력이 높다면 고통감내력 또한 높아 도박중독 문제에 대해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성이 부족하면 불확실함을 감내하지 못하여 고통감내력이 낮아지는 유의한 결과(안계훈, 2014)를 지지한다.

감각추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감각추구가 고통감내력을 경유하며 도박 심각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통감내력의 조절 하위 요인을 제외한 감내력 및 몰두 하위 요인은 완전매개, 평가 하위 요인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 하위 요인이 Daughters et al.(2013)에서 언급한 스틸 모험 추구와의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감각추구가 낮을 때 부정적인 정서나 경험에 노출되어지면 낮은 고통감내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 지지되어 도박에 빠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동성의 다차원적 특성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일차원적인 측면에서 충동성과 관련되어 이루어졌으나 다차원적 충동성의 세부적인 측면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 심각도의 위험 요인으로 다차원적 충동성의 세부요인 각각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중독 문제 중 도박과 관련하여 고통감내력의 의의를 확인한 것이다. 최근에 주목 받는 고통감내력은 심리 장애와의 연관성에 있어서 중독과 관련된 요인으로 지지받았으나 국내와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는 관계중독과 SNS 중독,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고통감내력을 활용하여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두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 사이에서 고통감내력이라는 변인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고통감내력의 변인이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 사이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으로 인해 낮은 고통감내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차원적 충동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통을 견디는 능력 수준이 낮을 경우 도박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통감내력이 도박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인임을 검증하였다는 것과 다차원적 충동성의

계획성 부족과 지속성 부족 하위 요인이 고통감내력에 의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두 변인과의 고통감내력 향상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한 점에 의미가 있다.

넷째, 연구는 각 변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검사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가 입증되어졌지만 왜곡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렴적 증거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얻는다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섯째, 연구는 상담 기관에 방문 중인 도박대상자들로 이루어져 임상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인해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도시의 상담 기관에 방문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으로까지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고통감내력 증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통감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포함되어지는 요인으로 힘든 순간에 느끼는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주의분산 처치,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는 비판단 처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리두기 처치,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돕는 회피방지 처치로 구성되어 있다(정지현, 2020). 다차원적 충동성의 하위요인과 고통감내력의 하위요인이 간접효과를 가지고 이에 따라 도박심각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통감내력 증진 프로그램을 도박중독에도 적용시킨다면 도박 심각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지영 (2019).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 및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dcollection.net/handler/dgu/000000079911>
- 강준혁, 맹성준 (2018). 문제성 주식투자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주식의 도박성에 관한 고찰. 생명연구, 49, 191-239.
<https://doi.org/10.17924/solc.2018.49.191>
- 권선중 (2014). 불법 도박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도박중독 수준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학생활연구, 20(1), 63-74.
- 김가희 (2019).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고통감내력과 SNS 중독: SNS 사용동기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dcollection.net/handler/daegu/200000180839>
- 김교현 (2006). 도박행동의 자기조절모형: 상식 모형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243-27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24415>
- 김민경 (2006). 병적 도박의 위험요인 탐색: 성격과 동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http://www.dcollection.net/handler/cau/000000008694>
- 김수민 (2016). 심리적 외상경험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dcollection.net/handler/catholic/00002293708>
- 김이영, 차정은, 권선중, 이순목 (2011). CPGI의 한국판 제작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011-1038.
<https://accesson.kr/kpageneral/v.30/4/1011/15807>
- 김영주, 이인혜 (2010). 도박 중독 취약성과 억제 능력의 결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817-840.
<https://doi.org/10.17315/kjhp.2010.15.4.015>
- 김영호 (2011). 대학생의 도박중독 실태. 대한보건협회 보건종합학술대회 자료집, 40.
- 김주원 (2010). 습관성도박치료 프로그램이 병적 도박자의 MMPI-2 반응양상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dcollection.net/handler/changwon/00000008429>
- 배진영 (2019).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유기불안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dcollection.net/handler/mju/000000074998>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6a). 2015년 사행사업 관련 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6b). 2016년 사행사업 이용실태 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서명교 (2020).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동기가 도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유사 도박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mu/000000118802>
- 서장원, 권석만 (2015). 고통 감내력과 심리장애: 경험적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397-42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

- =ART001999928
- 신민철 (2017). 충동성이 도박심각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 능력과 상대적 박탈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dcollection.net/handler/chungbuk/00000048516>
- 신영철 (2001). 병적도박의 약물 및 인지행동 치료.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2(4), 287-293.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08997558>
- 신현주, 김주찬 (2017). 청소년의 도박 중독의 쟁점과 과제-인형뽑기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7(2), 59-80. <https://doi.org/10.17315/kjhp.2020.25.4.009>
- 신현지, 임숙희 (2020). 도박중독의 자발적 회복 순환 과정 연구: 회복 유지집단과 재발집단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4), 777-796. <https://doi.org/10.17315/kjhp.2020.25.4.009>
- 안계훈 (2014).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걱정 증상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17700>
- 양 수, 홍정아 (2015). 병적 도박자 가족의 가족기능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4(3), 196-206. <https://dx.doi.org/10.12934/jkpmhn.2015.24.3.196>
- 우형진 (2007). 휴대폰 이용자의 자아성향이 휴대폰 중독 구성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자존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2), 391-427.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218794>
- 윤정민, 심은정 (2019). 정서적 섭식자의 부정 정서와 폭식 행동의 관계: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1), 45-68. <https://doi.org/10.17315/kjhp.2019.24.1.003>
- 이미영 (2019).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dcollection.net/handler/catholic/200000175683>
- 이영선, 김수연, 김혜지, 김한나 (2018). 20대 청년세대의 가상화폐에 대한 주관성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8), 137-145. <https://doi.org/10.5762/KAIS.2018.19.8.137>
- 이주영 (2010). 알코올중독자의 성격특성과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ungshin/00000006324>
- 이홍표 (2004). 5요인 도박동기의 검증과 도박 동기가 도박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 문제성 및 병적 도박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555-56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28671>
- 임선영 (2014).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 및 정서 조절 곤란이 폭식과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차원적 충동성 이론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dcollection.net/handler/catholic/000001744854>
- 임선영, 이영호 (2016).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

- 성 척도(UPPS-P)의 준거 타당화 연구: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791-814.
<https://doi.org/10.17315/kjhp.2016.21.4.007>
- 정보영 (2020). 코로나19 도박행위의 변화양상. 2020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국자살예방협회·중독포럼 공동 온라인 심포지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정은정 (2017). 관계중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dcollection.net/handler/catholic/200000003879>
- 중독포럼 (2020). 코로나19 전후 음주, 온라인 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등 중독성 행동변화 긴급 실태조사. [보도자료]
http://www.addictionfr.org/web/content/06/inex1/p hp?v_type=detail&c_code=369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6). 2016 도박문제 관리백서.
<http://www.koreacasino.or.kr/e-book/access/combo.jsp?callmoe=normal&catimage=&eclang=&Dir=66&um=s&start=0>
- 한유진, 최나야 (2009). 초·중·고생의 인터넷 중독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기조절 간의 관계. *가정과삶의질연구*, 27(3), 171-18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5387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5th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estis, M. D., & Joiner, T. E. (2012). Behaviorally-indexed distress tolerance and suicidalit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6(6), 703-707.
<https://doi.org/10.1016/j.jpsychires.2012.02.01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laszczynski, A., & Nower, L. (2002). A pathways model of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ing. *Addiction*, 97(5), 487-499.
<https://doi.org/10.1046/j.1360-0443.2002.00015.x>
- Bradley, S. J. (2003). *Affect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The Guilford Press.
- Brown, R. A., Lejuez, C. W., Kahler, C. W., Strong, D. R., & Zvolensky, M. J. (2005). Distress tolerance and early smoking laps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6), 713-733.
<https://doi.org/10.1016/j.cpr.2005.05.003>
- Buckner, J. D., Keough, M. E., & Schmidt, N. B. (2007). Problematic alcohol and cannabis use among young adults: The roles of depression and discomfort and distress tolerance. *Addictive Behaviors*, 32(9), 1957-1963.
<https://doi.org/10.1016/j.adbeh.2006.12.019>
- Chowdhury, N., Kevorkian, S., Hawn, S. E., Amstadter, A. B., Dick, D., Kendler, K. S., & Berenz, E. C. (2018). Associ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distress tolerance among trauma-exposed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0, 166-170.
<https://doi.org/10.1016/j.paid.2017.08.041>

- Clen, S. L., Mennin, D. S., & Fresco, D. M. (2011). *Major depressive disorder*. The Guilford Press.
- Corstorphine, E., Mountford, V., Tomlinson, S., Waller, G., & Meyer, C. (2007). Distress tolerance in the eating disorders. *Eating Behaviors, 8*(1), 91-97.
<https://doi.org/10.1016/j.eatbeh.2006.02.003>
- Cyders, M. A., Smith, G. T., Spillane, N. S., Fischer, S., Annus, A. M., & Peterson, C. (2007). Integration of impulsivity and positive mood to predict risky behavio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positive urgency. *Psychological Assessment, 19*(1), 107-118.
<https://doi.org/10.1037/1040-3590.19.1.107>
- d'Acremont, M., & Van der Linden, M. (2007). How is impulsivity related to depression in adolescence? Evidence from a French validation of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Journal of Adolescence, 30*(2), 271-282.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06.02.007>
- Daughters, S. B., Gorka, S. M., Magidson, J. F., MacPherson, L., & Seitz-Brown, C. J. (2013). The role of gender and race i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 distress tolerance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sychopathology. *Journal of Adolescence, 36*(6), 1053-1065.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3.08.008>
- Daughters, S. B., Lejuez, C. W., Bornovalova, M. A., Kahler, C. W., Strong, D. R., & Brown, R. A. (2005). Distress tolerance as a predictor of early treatment dropout in a residential substance abuse treatment faci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4), 729-734.
<https://doi.org/10.1037/0021-843X.114.4.729>
- Daughters, S. B., Sargeant, M. N., Bornovalova, M. A., Gratz, K. L., & Lejuez, C. W.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mong male inner-city treatment seeking substance us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2*(5), 509-524.
<https://doi.org/10.1521/pedi.2008.22.5.509>
- Dennhardt, A. A., & Murphy, J. g. (2011).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distress tolerance, delay discounting, and alcohol related problems in Europe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5*(4), 595-604.
<https://doi.org/10.1037/a0025807>
- Devereux, E. C. (1979). Gambling.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7*. Macmillan New York.
- Fischer, S., & Smith, G. T. (2008). Binge eating, problem drinking, and pathological gambling: Linking behavior to shared traits and social learn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4), 789-800.
<https://doi.org/10.1016/j.paid.2007.10.008>
- Gorka, S. M., Ali, B., & Daughters, S. B. (2012). The role of distress toler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atic alcohol us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6*(3), 621-626.
<https://doi.org/10.1037/a0026386>
- Grant, J. E., & Kim, S. W. (2002). Gender differences in pathological gamblers seeking medication treatment. *Comprehensive Psychiatry, 43*(1), 56-62.

- <https://doi.org/10.1053/comp.2002.29857>
- Gratz, K. L., & Tull, M. T. (2011).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K. L. Gratz & M. T. Tull (Eds.), *Distress tolerance: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198-220). The Guilford Press.
- Ibanez, A., Blanco, C., Moreryra, P., & Saiz-Ruiz, J. (2003). Gender differences in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4*(3), 295-301.
- https://www.psychiatrist.com/wp-content/uploads/2021/02/13686_gender-differences-pathological-gambling.pdf
- Jessor, R., Donovan, J. E., & Costa, F. M. (1994). *Beyond adolescence: Problem behavior and young adult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ehan,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Guilford press.
- MacLaren, V. V., Fugelsang, J. A., Harrigan, K. A., & Dixon, M. J. (2011). The personality of pathological gamblers: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6), 1057-1067.
- <https://doi.org/10.1016/j.cpr.2011.02.002>
- May, G. G. (2002). *중독과 은혜* (이지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Original work published 1988).
- McConville, C., & Slade, P. (2003). The problem with problem gambling: Historical and economic concerns. *Journal of Economic & Social Policy, 8*(1), 1-16.
- <https://search.informit.org/doi/10.3316/ielapa.200401391>
- McCown, W. G., & Chamberlain, L. L. (2000). *Best possible odds: Contemporary treatment strategies for gambling disorders*. Wiley.
- <https://doi.org/10.4309/jgi.2002.7.13>
- McHugh, R. K., Daughters, S. B., Lejuez, C. W., Murray, H. W., Hearon, B. A., Gorka, S. M., & Otto, M. W. (2011). Shared variance among self-report and behavioral measures of distress intolera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5*(3), 266-275.
- <https://doi.org/10.1007/s10608-010-9295-1>
- Mishra, S., Lalumiere, M. L., & Williams, R. J. (2010). Gambling as a form of risk tak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risk-accepting attitudes, and behavioral preferences for ris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6), 616-621.
- <https://doi.org/10.1016/j.paid.2010.05.032>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https://doi.org/10.3758/BF03206553>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https://doi.org/10.1080/00273170701341316>
- Richards, J. M., Daughters, S. B., Bornovalova, M. A., Brown, R. A., & Lejuez, C. W. (2011). Substance use disorders. In M. J. Zvolensky, A. Bernstein & A. A. Vujanovic (Eds.), *Distress Tolerance: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171-197). The Guilford Press.
- Schaeffer, B. (2010). *사랑중독* (이우경 역). 이너북스. (Original work published 1987)

- Simons, J. S., & Gaher, R. M. (2005). The Distress Toler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Motivation and Emotion, 29*(2), 83-102.
<https://doi.org/10.1007/s11031-005-7955-3>
- Simons, R. M., Sistas, R. E., Simons, J. S., & Hansen, J. (2018). The role of distress toler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schemas and alcohol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78*, 1-8.
<https://doi.org/10.1016/j.addbeh.2017.10.020>
- Trafton, J. A., & Gifford, E. V. (2011). Biological bases of distress tolerance. In J. A. Trafton & E. V. Gifford (Eds.), *Distress tolerance: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80-102). The Guilford Press.
- Vujanovic, A. A., Marshall, E. C., Gibson, L. E., & Zvolensky, M. J. (2010). Cognitive-affective characteristics of smokers with and withou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panic psychopathology. *Addictive Behaviors, 35*(5), 419-425.
<https://doi.org/10.1016/j.addbeh.2009.12.005>
- Whiteside, S. P., & Lynam, D. R. (2001). The five factor model and impulsivity: Using a structural model of personality to understand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4), 669-689.
[https://doi.org/10.1016/50191-8869\(00\)00064-7](https://doi.org/10.1016/50191-8869(00)00064-7)
- Zuckerman, M. (1989). Personality in the third dimension: A psychological approac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391-418.
[https://doi.org/10.1016/0191-8869\(89\)90004-4](https://doi.org/10.1016/0191-8869(89)90004-4)

원고접수일 : 2023. 08. 29.

수정원고접수일 : 2023. 11. 08.

게재확정일 : 2023. 11. 10.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Impulsivity and Gambling Severit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Dae Geun Ha¹⁾

Soo Jin Lee^{2)†}

¹⁾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sung University, M.A.

²⁾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s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In this study,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and distress tolerance were considered as variables that can control the personality of gambling risk that affects the severity of gambling, leading to pathological gambling behavior. The effect of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on gambling severity were also examined. It was intended to be studied in connection with distress tolerance because most people use substances to relieve their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and use relationships and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to escape from reality. A multidimensional impulse questionnaire, gambling severity questionnaire, and distress toleranc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165 clients who visited a counseling center located in Gyeongsang-do, South Kore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variables and Process Macro of SPSS Hayes was used to confirm the effect of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on gambling severity through distress tolerance.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and gambling severity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distress toleranc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and gambling severity: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directly affects gambling severity, and simultaneously has an indirect effect by mediating distress tolerance. In summary, this study confirmed the direct effect of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and the indirect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and gambling sever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recommenda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gambling severity, distress tolerance, mediating effect

* This paper is a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 Corresponding Author : Soo Jin Lee / Department of Psychology, Professor / Kyungsung University, 309, Suyeong-ro, Nam-gu, Busan, Republic of Korea / Tel: 051-663-4328 / E-mail: leesooj@ks.ac.kr